

곤도라로 덕유산 단풍여행을

편하게 향적봉 정상 올라...절정 이룬 단풍절경 한눈에 볼 수 있어

쌀쌀한 바람에 코끝이 차갑고 옷깃을 여미는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가을은 오색빛깔이 유혹하는 단풍의 계절.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물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말 설악산을 시작으로 단풍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덕유산(1,614m) 무주구천동 계곡에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14~15일)에는 단풍이 절정을 이뤘다. 가을 단풍을 찾아 덕유산 국립공원으로 떠나보자. 덕유산에는 계곡의 맑은 물과 나무가 가득한 숲속에서 황금빛 단풍을 즐길 수 있다. 덕유산의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코스는 곤도

라를 이용하는 것이다. 부영그룹이 운영하는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곤도라를 타고 설천봉까지 오를 수 있다. 설천봉(1,520m)부터 정상인 향적봉까지는 별도의 트레킹 장비가 필요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오를 수 있다. 완만한 계단길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향적봉은 덕유산의 정상이라 단풍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념사진을 찍기에도 최적의 장소다. 향적봉에서 중봉으로 가는 길은 주목과 구상나무 군락지, 향형색의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덕유산 능선을 바라보기에 그만이다. 신라 진덕여왕 때 창건한 고찰 백련사로 향하는 길과 구천동 계곡 역시 아

름다운 단풍의 비경을 자랑한다. 특히 구천동 계곡은 아름다운 절경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올 가을 덕유산 산행을 떠나려면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이용해 보자. 1박2일 코스로 무주덕유산리조트에 머물며, 곤도라를 타고 덕유산에 올라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다. 곤도라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입장료는 왕복의 경우, 일반 1만5,000원, 어린이 1만 1,000원이며, 편도는 각각 일반 1만 1,000원, 어린이 7,700원이다. 문의 063)320-7187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영호남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 13일 장수 공설운동장에서 제10회 영호남 그라운드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장수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장수군그라운드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영호남 그라운드골프 동호인 간 교류 및 화합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단체전 및 개인

지역 매 아리

장수읍·계남면 '노인의 날 행사'

장수군은 제10회 노인의 날을 맞아 12일 장수읍(한누리 전당, 500명)과 13일 계남면(계남초 체육관, 500명)에서 한영회 부군수와 기관단체장, 노인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장수읍은 장수읍 노인회가 주최한 행사로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군 노인복지관 실버밴드의 신명나는 축하공연과 사단법인 금강 유영에 소리보존회의 제13회 산골곡악 한마당 공연이 펼쳐졌고, 노인복지 발전에 힘쓴 준비마을 신상호(81세)씨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계남면은 계남면노인회가 주최하고 계남면자율방범대 주관으로 계남면 백화동물단의 공연이 펼쳐졌고, 기념식에서는 노인복지 발전에 노력해 온 조곡마을 장재열(82세)씨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갈매마을 김정순(94세), 궁평마을 손금옥(93세)씨에 대한 장수상 시상식이 있었다. 한편 계남면은 기념식에 이어 전주연탄은행 봉사단에서 종식 봉사과 품바공연 및 신나는 예술버스 문화공연의 장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이 뒤따랐다. /장수=고관호 기자

고창 수박·멜론, "시장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발전방향 심포지엄 개최... 소과종 수박 가능성·기능성 멜론 파악 등 논의

고창군이 대표 농산물인 고창수박과 고창멜론의 신브랜드 육성을 위해 농촌진흥청, 전북농업기술원과 함께 고창 수박·멜론 발전방향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고창 수박·멜론 발전방향 심포지엄'은 박우정 고창군수와 농촌진흥청, 전북농업기술원, 농식품유통업계, 종묘회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 수박, 멜론 재배 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고창 수박과 멜론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심포지엄은 소비자의 소비트렌드 파악으로 고품질 고창 수박·멜론 생산과 판매 전략을 수립해 고창 수박·멜론의 위상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소비트렌드에 맞는 고창수박 멜론 발전방향 모색,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농식품 소비변화에 따른 소과종 수박의 특성 파악 및 상품화 가능성 규명, 기능성 멜론 품종 특성 파악 및 고창브랜드 정착화 방안 모색 등의 참석자들의 열띤 의견제시와 토론이 함께 이뤄졌다. 농촌진흥청 박동훈 과장은 주제발표에서 고창 수박과 멜론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비

교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소비방향을 정리하고 앞으로 고창 수박 멜론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유통신문 신재호 기사는 농업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소비트렌드 파악과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농업인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농업의 빅데이터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수박은 좋은 토질의 황토와 서해안 해풍, 여기에 지역 농업인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으로 구축한 우수한 생산기술이 더해져 전국 최고의 명품 수박으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되며 오랫동안 최고의 명성을 이어왔고, 고창멜론 또한 수박에 이어 첨단시설 지원과 재배기술 보급 등 품질향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수박과 멜론 산업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찾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시장에서 한발 앞서 대응하면서 농업과 농촌에 희망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며 행정에서도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수박은 '대한민국대표브랜드'에서 10년(2007년~201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전국에서 우수

한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며, 고창멜론은 지난해 최고품질 생산단지 채소부문 대통령상 수상과 대한민국 히트상품대상(2016년),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2017년), 대한민국대표브랜드 대상(2017년) 수상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수군,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장수군은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2017년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총력 징수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13일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3억5,000만원으로 일제정리기간 동안 4억6,800만원을 징수 목표로 특별징수 활동을 펼친다. 전 체납자에게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송부하고 각종 채권 압류·추심, 압류재산 공매처분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훈식 재무과장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해 지주채권 확충은 물론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홍삼축제 속의 축제 '진안군민 노래자랑' 19일 펼쳐져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건강충진! 활력충진! 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2017 진안홍삼축제' 첫날인 19일 저녁 6시, 북부미야산 특설 무대에서는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제32회 진안군민 노래자랑이 시작된다. 진안청년회의소 JCI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군민들이 한데 어울려 진안의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준비해 평소 노래에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진안군민이 다수 참가한다. 또한 인기 가수 김잔디와 성진우, 지역 가수 출신 서운과 김정연이 초대 가수로 출연하여 축제의 열기를 한층 북돋울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군민가요제 입상자에게는 세탁기(10kg), 32인치 TV, 가습기 등의 시상이 전달될 예정이며, 시상식이 끝난 후에도 김치냉장고, 세탁기(10kg), 32인치 TV 등 푸짐한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항로 군수는 "깊어가는 가을밤, 진안홍삼축제를 찾는 이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뜬봉샘배 테니스대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 14일 장수 공설운동장 테니스장과 보조구장에서 제13회 뜬봉샘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장수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장수군테니스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북 테니스 동호인 430여명(남자부 128명, 여자부 64명 등)이 참여해 남자부, 여자부 개인복식 경기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활기찬 대회가 치러졌다. 장수군은 읍면별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보육아동 한마음대회 '성황'

진안군 보육아동 한마음대회가 지난 13일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진안군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관내 전체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학부모, 교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올해 보육아동 한마음대회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행사로 크게 체육행사와 체험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아동 및 가족이 2개 팀으로 나뉘어 장애물넘기, 공놀이, 슈퍼보드게임, 지게지고 달리기 등을 하는 체육행사와 버블체임, 풍선아트, 로켓발사, 가족액자 만들기 등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던 에어바운스 행사장에 설치되어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시장 '통큰 바비큐 축제' 21~22일

2017 진안홍삼축제 기간인 10월 21일(토)~22일(일) 오후 1~6시 진안고원시장에서는 '통큰 바비큐 축제'가 운영된다. 통큰 바비큐 축제는 육질이 좋고 맛 좋은 진안산 돼지를 통으로 구워 바비큐로 판매한다. 1인분 가격은 소스, 쌈 채소, 반찬 포함 7,000원이며, 모든 주류는 2,500원, 음료류는 1,000원에 판매된다. 또한 산골 음악회라는 주제로 통기타 연주와 트로트 가수 공연 등 공연 행사도 준비되어 있으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텃밭에서 재배한 더덕, 도라지, 표고 등 특산물 판매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진안군은 축제 기간 중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시장 1층 주차장을 내방객들에게 개방하며 북부 미야산 본 행사장과 시장을 오가는 셔틀 버스로 무료로 운영된다. 축제 방문객들은 북부 미야산 본 행사장 방문 전후 진안고원시장에서 특산물도 구매하고, 공연도 보면서 통바비큐와 함께 막걸리 한잔으로 목을 적시면 어떨까?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군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략산업과
063-430-2951